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정세균, 이낙연, 김상조, 민주당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당대변인,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 선별지원”

당정청, 고용취약층·소상공인 등 대상 지원 공식화 4차 추경안 7조원대 편성... 추석 이전에 지급될 듯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같은 형식이 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선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정청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4차 추경을 통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

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세회망 자금,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제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이번 주 중에 대책 발표와 함께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

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집회 등을 거치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해왔다. 사실상 전액 국제발행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정은 지원 대상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으로 제주도민들 가운데 일부는 두 차례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지난 4월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했고,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2차 제주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고용유지지원 특례 연장율” 중기중앙회, 정부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연 180일로 돼 있는 지원 기간 한도를 늘리고, 이달 종료

되는 특례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연 180일 지원 기간 한도 때문에 곧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는 기업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또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례 지원 기간도 고용 충격을 완화하도록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너진 정의현성 성곽 제 모습 찾나

집중호우로 성곽 일부 붕괴도, 1·2구간 복원 정비 예고 전문가 자문 받아 보수설계

집중호우로 무너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마을의 정의현성 성곽 일부에 대한 복원정비사업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억8400만원을 투입해 정의현성 서문 우측면 내외부에 일부 붕괴된 성곽 하단부와 등성시설(계단) 등 1·2구간을 복원한다고 6일 밝혔다.

1구간은 서문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 8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난 집중호우로 성곽

이 무너졌고 허물어진 성곽돌이 외부 정면으로 쏟아진 상태. 특히 무너진 부분의 경계는 면석이 이완되거나 배부름 현상이 있어 이번 공사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이다.

2구간은 서문을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약 15m 지점이다. 1구간과 마찬가지로 집중호우에 붕괴됐고 무너진 면석은 1구간과 비슷한 양상이다.

앞서 도는 2011년 성곽 등성시설 복원 공사를 진행했다. 1984년 서문루 복원에 따른 계획도면에 대한 자료와 1914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지리원 지적도 등을 참고해 문화재 원형에 대한 고증 및 자문에 의거, 기존 출입로에 성곽과 등성시

설을 복원했다. 이번 공사 구간은 복원했던 구간의 우측의 무너진 곳이다.

도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수설계를 진행하고, 특히 면석과 뒷채움석의 구조적 분리가 붕괴의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부분을 복원과정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뒷채움석과 면석이 서로 맞물려 쌓도록 해 구조적으로 일체화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다.

정의현성은 조선시대의 성곽으로 1986년 북쪽성벽 382m 보수를 시작으로 1994년까지 대대적인 복원·보수 사업이 이뤄졌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국내 1위 삼다수, 해외시장 뚫는다”

최신 생산라인 추가 설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국민생수’인 제주삼다수의 안정적인 국내 시장 공략을 물론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최신 생산라인을 추가로 설비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제주시에 삼다수공장 증축공사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설비 확충 등에 1300억원을

투입해 2025년 12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신규 설비인 L6라인은 현 공장 부지의 남측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야적장과 창고, 다목적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설비 증축에 앞서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일대 공장 부지를 기존 8만1396㎡에서 14만9760㎡로 대폭 확장했다.

현재 삼다수 공장의 생산라인은 L

L-1.5이며, 이 가운데 1998년 삼다수 첫 생산을 담당했던 L1은 최근 철거됐다. L2는 노후화 등의 이유로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공사는 2018년 450억원을 들여 L5를 증설했고, 이번 L6 설비를 확충하면 노후화 된 설비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1일 4600t, 연간 최대 166만t의 지하수를 취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삼다수의 국내 생산시장 점유율은 42%(매출액 기준)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신임 제주도 서울본부장엔 누가...

도, 이번 주 임명 가능성 외부 인물 발탁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서울본부장에 공모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조만간 신임 본부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개방형 공직인 부이사관급(3급) 서울본부장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서울본부장은 국회 및 정부협력, 중앙질책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달 3일 완료된 공모 결과 서울본부장에는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면접시험을 통해 응모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각각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 인사위원

도, 돌봄센터 설치장소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생 접근성이 높고,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다.

운영자에게 최소 1회에 한해 설치비(최대 리모델링비 5000만원, 기자재비 2000만원)와 매년 인건비(시설장 월 220만원, 시간제 돌봄교사 2명/월 109만원) 등이 지원된다.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은 제주도청과 각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오는 18일까지 관할 행정시 아동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태운기자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 옥 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의 **064.742.6234**
010.7599.6234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려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질맛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